



교육부

보도자료

다시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2023. 11. 07.(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11. 7.(화)12:00

(지면)2023. 11. 8.(수) 조간

관계의 인문학, 세계 인문석학들과 함께하는 담론의 장 열려

- 제7회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 11.8.(수)부터 11.10.(금)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
- 인문학적 관점에서 관계의 문제 고민, 소통·공존·공감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주관하고, 유네스코에서 후원하는 제7회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가 11월 8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다.

2011년부터 개최된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문학계 간 지속적인 지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관계의 인문학 :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를 주제로 하고 ‘소통을 통해 연대로’, ‘공존과 상생’, ‘공감을 통한 화합’을 소주제로 하여 진행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13개국, 230여 명의 연사 등이 참여해 소주제별 분과에서 강연 및 발표,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학자 발표 시에는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운영한다. 또한, 사전 참가신청자(10.10.~10.31.)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이면에는 관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공개토론회(포럼) 참가자들이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공존·공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7회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 행사 주요 안내자료

담당 부서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진 (044-203-6870)
관리 기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3-6873)
		책임자	팀 장	문덕현 (042-869-6721)
		담당자	담 당	최우용 (042-869-6722)